

이양동시부터 중기까지

풀처리



입제

- ▶ **일년생과 다년생 문제 잡초를 한꺼번에 방제**
일·다년생 잡초 뿐만 아니라 난방제 잡초에도 효과적이며 지속기간이 길다.
- ▶ **처리시기의 폭이 넓다.**
잡초 발생 전부터 썬레질 후 7~17일(피2~2.5엽기까지) 사용할 수 있는 중기제초제
- ▶ **벼 생육초기에 처리해도 안전**
온도변화, 토성 및 담수심에 대한 영향이 적어 일반적인 재배조건에서 안정적 사용

품목명 : 펜트라자마이드 + 이마조선폴론 (1+0.25)% | 약효보증기간 : 4년 | 독성 : 저독성, 어독성 III 급 | 포장단위 : 3kg x 8EA | 작용기작 : K3+B

적용 잡초 및 사용량

작물명	적용 잡초	사용시기 및 방법	1,000㎡ (10a)당 사용약량
기계이양벼 (어린모)	일년생 잡초 (피, 물달개비, 여뀌바늘, 알방동사니) 및 다년생 잡초 (벼풀, 올방개, 올챙이고랭이)	이양동시 수면처리	3kg
	일년생 잡초 (피, 사마귀풀, 물달개비, 여뀌바늘, 발뚝외풀, 알방동사니) 및 다년생 잡초 (올방개, 너도방동사니, 벼풀, 가래, 올챙이고랭이)	이양 후 15일 수면처리	
	일년생 잡초 (피, 가막사리, 사마귀풀, 물달개비, 여뀌바늘, 발뚝외풀, 알방동사니)	이양동시 수면처리	1kg

작용기작

- ▶ **이마조선폴론** : 뿌리, 줄기 등으로 흡수, 필수 아미노산 생합성을 저해, 세포분열을 억제하여 독성물질 축적으로 고사에 이르게 한다.
- ▶ **펜트라자마이드** : 주로 뿌리 부위에서 흡수되어 피, 알방동사니, 물달개비, 올미 등 일년생 잡초를 고사시킨다. 피는 발아 전부터 2~2.5엽기까지 효과를 발휘하며, 약효 지속기간은 40~50일이다. 비교적 온도, 토성, 담수심에 대한 영향이 적다.

효과적인 사용방법

- ▶ 썬레질 작업을 균일하게 하고 모를 2~3cm 깊이로 심고 논물을 4~5cm 정도로 충분히 댄 후 썬레질 후 15~17일 이내에 논 전면에서 골고루 뿌려주시시오.
- ▶ 약을 뿌린 후 최소한 3~4일은 논물이 빠지지 않도록 논물관리를 철저히 하시고,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계속 보충하여 주십시오.
- ▶ 썬레질 후 이양시기가 늦어지거나 올방개, 벼풀, 피 등 난방제 잡초가 많은 논에는 썬레질 후 초기효과 같은 이양 전 처리제를 살포하시고, 이양 전 처리제 사용 후 15~20일경에 이 약제를 뿌리시면 더욱 우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.
- ▶ 전년도에 저항성 잡초의 발생이 많았던 논에는 반드시 썬레질 후 바로 반들, 반석과 같은 이양 전 처리제를 살포하여 체계처리 하십시오.
- ▶ 저항성 잡초의 적절한 방제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경엽처리용 제초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.
- ▶ 기계이양 후 모를 보식할 경우에는 먼저 모를 깊게 심은 후 보식한 모가 활착한 다음 약제를 처리하여 주십시오.



71 | 풀처리 입제